#2

황만근이 토끼귀신과 싸워 소원을 이루는 장면

[무대 어두움, 연기(가능하면), 으스스한 소리]

장소: 토끼고개

엄청 큰 토끼: 너는 집에 못 간다. 너는 집에 못 간다. 너는 집에 못 간다.

너는 여기서 죽는다.

(토끼가 입을 벌린다 [이가 반짝거림])

황만근: 그기 뭔 소리라?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꼬 집에 못 간다 카나.

귀신이마 썩 물러가고 토끼마 착 엎디리라. 내가 너를 타고서라고 집에 갈란다.

엄청 큰 토끼: 너는 여기서 죽는다. 너는 여기서 죽는다. 너는 여기서 죽는다.

너는 집에 못간다.

(토끼가 황만근에게 다가간다)

황만근: (소름끼치는 몸짓)비키라!!

(토끼를 손으로 밀친다)

(손이 토끼의 몸속으로 들어가 안빠진다)

(조금 있다가 동이 튼다)

엄청 큰 토끼: 너는 이제 살았다. 너는 이제 살았다.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

황만근: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. 니를 탕으로 끓이서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앉아서

먹어치울 끼다. 니 가죽을 빗기서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

장갑을 할 끼다. 니는 인자 죽었다, 자슥아

엄청 큰 토끼: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.

황만근: (어이없는 표정) 내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잇 거는 못 간다

엄청 큰 토끼: 네 소원이 뭐냐.

황만근: 우리 어무이가 팥죽 할마이겉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.

엄청 큰 토끼: (동이 트는 것을 보고 초조해 한다) 지금 들어주었다. 그 다음은?

황만근: 여우 겉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.

엄청 큰 토끼: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. 다음은 무엇이냐?

황만근: 떡두깨(떡두꺼비) 겉은 아들이다.

엄청 큰 토끼: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. 이제 나를 놓아라.

황만근: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. 니가 가뿌리만 되지, 바보자슥아.

엄청 큰 토끼: 화를 내고 가버린다